

jesamkwang.com

Design
Tonic

JSKcommunications

세상 모든 디자인은
(주)삼광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니다.

JSKcommunications

[100 SAMKWANG COMMUNICATIONS CO., LTD]

서울시 용구 자갈치 75-8 4-272동 402호 +402호 / TEL 02-2079-0700 / FAX 02-2079-0700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2009. 10. 14(수) 11:00 서울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09
11

Vol. 208 November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합의 재정합을 기다려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11 우리문화

통권 208호 November



표지 | 지역 문화 알리미들
전국 문화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225개 지자체별로 지역문화 홍보대사(지역 문화 알리미)를 위촉하는 행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경향각지에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06	연합회 소식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11	문화원 탐방 인천부평문화원
16	특별기고 한 젊은이의 몽골답사기
22	문화광장 실존 인물은 어떤 연유로 마을 신(神)으로 모셔지게 된 것일까?
24	문화둘러보기 청주고인쇄박물관
28	문화원 이야기 학산문화역사마을
32	진도문화원
35	문경·울진문화원
36	들여다 보기_ 연합회 사업 다문화사업
42	가을독서문화축제 책책북북
46	나의 책수집 편력기
50	기획 한국의 예절
54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 소식
60	원장동정

칼럼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지방문화원의 주체적 역할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은 법 제8조에 9개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이란 지역을 문화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이 문화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생활환경이 '인간다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지역문화진흥이란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문화원을 설립만 하면 저절로 지역이 문화적으로 되는 것인가. 설립만으로는 안 된다. 설립된 문화원이 지역주민과 지역문화단체의 거점(center)으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지역이 문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주체적 역할이란 문화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역할이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지역의 문화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시대와 지역의 문화생활이 변하는데 따라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체적 역할에 정해진 교과서(매뉴얼)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창조적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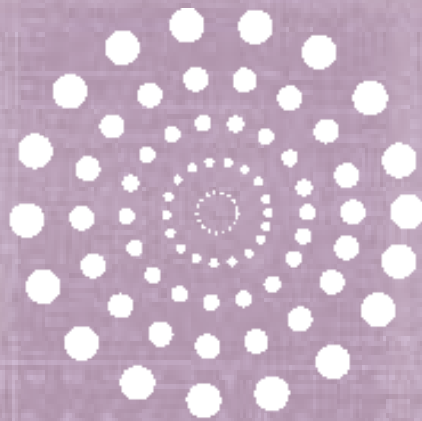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브랜드화

지방문화원은 각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창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의 시대는 독창성 있는 지역문화의 시대이므로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과제이다.

지방문화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리더들과 주민 및 문화단체들과 제휴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연구·조사·발굴·기획하고 조직화해서 실천해 나가는 지역문화창조의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행사는 프로그램의 소재와 그 표현수단도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이 지역축제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이라는 공동체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응집체이다. 즉, 지역문화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문화요소를 담아내는 것은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것을 대내외로 발산하는 문화발신지가 지방문화원이다.

주민문화활동의 활성화 촉진

주민의 감성르 대화하고, 인간다운 감정을 기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이 첫째이다.

문화원은 이에 대응해서 각종 주민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한다. 문화는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할 때 그 참다운 '맛과 멋'을 느낄 수 있고, 비로소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문화원은 주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창출하는 '거점(center)'이 되기 위해 능동적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의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던 주민은 문화의 생산자의 위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즉 문화향수자의 지위를 뛰어넘어 문화창조자의 지위를 되찾아 주는 역할을 문화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화활동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

문화원이 지역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문화활동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지역문화 사회교육(평생교육) 활동을 심화시키고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일부에 국한된 계층만이 문화예술을 즐기거나 관심을 가졌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시대로 변하고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문화예술을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의 지역문화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주민)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운영 면에서도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제도를 확대·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창조역량을 어둡 신장·발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어쨌든 문화예술사회교육은 문화민주주의 문화전략의 핵심이며, 문화권의 신장운동이고, 국민정서 함양운동이며, 문화복지

지방문화원은 글로벌시대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역내 각계 · 각층의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창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운동이고, 주민의 문화화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살기 공동체 문화형성

과거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마을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과실을 나누고, 상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래와 춤을 만들어 즐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생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역적인 불균형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팽창,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의 사회적 · 세대간의 갈등 문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의 차별화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화합 분위기가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지방문화원이 ‘어르신문화학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계층 그 자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들 계층과 다른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다문화가정과 마을주민, 외국인노동자와 일반주민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해나가는 것이 발전적이라 생각된다.

지방문화원은 글로벌시대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역내 각계 · 각층의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창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지역문화 정보센터의 역할

지방문화원은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사업과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사업을 통하여 많은 자료들이 전시 열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자기인식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역사와 그곳에서 삶을 이끌어온 조상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을 찾고, 장래를 생각하는 싱크 ·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료관을 구성 · 전시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지방문화원의 자료관은 단순한 주민 교육장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느끼고 무엇인가 자극을 받는 곳, 도전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물론 외지 방문객은 그곳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의 장, 지역과 지역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문화원들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각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졌을 때 지방문화원 위상은 한층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내부에 유능한 '문화프로듀서'와 '문화경영자'가 있어야 하고, 문화원은 이런 '문화일꾼'을 육성·확보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지방문화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주체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련 있는 문화예술 기관·단체, 문화예술시설·공간, 민간문화예술단체(인), 학교 및 교육기관, 사회단체, 기업단체(인), 주민문화예술단체(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하는 방법은 상호간 윈윈할 것을 전제로 인적·물적 교류, 역할분담과 공동사업 전개, 관객 및 교육 수강생 독려·확보, 전문지식과 기술교류, 조사·연구·컨설팅 교류, 후원과 협찬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메세나운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지방문화원의 주체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연합회 소식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국 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석

지난 10월 14일(수)에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국 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전국문화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문화 창달에 헌신하는 문화가족들을 격려했으며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하였다. 홍재형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권영한 태백문화원장의 애국가 제창으로 자리는 더욱 열기를 띄었으며 한근수 유성문화원장의 문화비전선언문 낭독으로 문화가족들의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과 지역문화 알리미 위촉

아울러 2009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을 통해 문화원의 지역문화 선도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225개 지자체별로 지역문화 홍보대사(지역 문화 알리미)를 위촉하는 행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경향각지에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청주문화원 지역문화 알리미 홍재형 국회의원과 당진문화원의 박계배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대표로 소감을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방송인 오정해 씨의 공연으로 성황리에 1부를 마감하였다.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으로 문화원 안팎의 자부심 고취

2부 시상식은 이종인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 및 총평으로 시작되었다. 지역문화원 화창달부문은 고유문화 개발 및 보급,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로 10개의 개인 및 단체에 시상되었고 축제 및 문화행사부문 1개 문화원,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부문 1개 문화원, 창의활동 부문 1명(문화원 직원) 문화협력부문 3개(기업, 기관, 단체)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 1개 문화원으로 시상했다.

(시상내역은 표 참조)

분 야	수상대상	문화원
2009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 상	경북 문경문화원	문경문화원
우수 프로그램	축제 및 문화행사	서울 영등포문화원 (연화극 '선유도이야기')
	인력양성 및 교육	전남 신안문화원 (천일염 장인 선발 교육사업)
창의활동	조연성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동해문화원
문화협력	조경제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회장)	달서문화원
	이호순 (하브라나농원 대표)	평창문화원
	광주이씨 대종회	성남문화원
문화창달	고유문화개발 및 보급	박일엽 (서도소리 지회장)
		김진돈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임순정 (문화해설사)
		이윤선 (동작문화원부원장, 향토사연구소 소장)
		최성환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박종안 (밀양고등학교 교사)
		김영배 (향토사학자)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포천문화원
		시니어클럽/전래놀이연구회 (구리문화원)
		문화예술 국내외교류
	문화예술 국내외교류	구미문화원
		구미문화원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은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문화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마련했다.

품격 있는 시상식 개최를 통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활동하는 지역문화 관계자들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원상 대상을 수상한 문경문화원의 채대진 원장





•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개회사

2009 전국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방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의 많은 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홍재형 국회의원님, 이한성 국회의원님, 그리고 멀리서 오신 신현국 문경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원 홍보대사인 알리미로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방문화원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225개 지방문화원과 18만명의 문화가족들은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자생력과 창의성을 키워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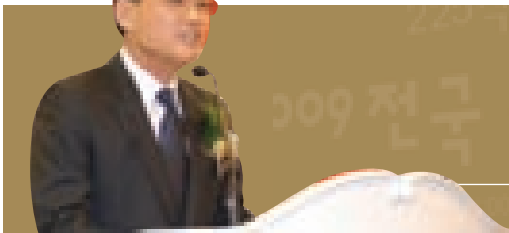
끝으로 대한민국 문화원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를 쓰신 심사위원과 오늘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홀 전경



문경문화원에 문화원상 대상을 시상 중인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연수 때 올림픽 공원에서 뵈고 올해 두 번째 뵈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저희가 이름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살고 있는 그 곳의 문화 내지는 생활습관 기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데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갖고 한자리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문화라는 큰 이름 안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그런 자리여서 이 자리가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이끄시느라 고생하신 최중수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사실 문화원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또 저를 많이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문화원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평소의 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 제가 연수 때 문화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어려움, 또 갖고 있던 환경에 대한 약간의 변화,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원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예산 문제라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아마 점차 개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이한성 국회의원님, 홍재형 국회의원님 문화원 행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도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문화원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고, 신현국 시장님 제가 문경 많이 갔습니다. 문경, 제천 단양 충청권에는 강이 있고 조정경기 열리는 충주 비롯해서 매 주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이동하기 간편한 수단을 동원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확인한 사항이 지역문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 올해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된 일을 개선시키고 진도를 나갔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 문화 또는 지역에 대대로 전승되고 계승되는 문화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현대에 맞게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열심히 문화, 체육, 관광 전반적으로 지역과 서울 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것이 피부적으로 과연 이것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것 중 하나가 지역의 아주 작은 지역까지도 촘촘하게 문화에 관련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이 느낄 정도로 정말 개선되고 있구나,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중앙에서 정부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새집을 짓고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많이 방치되어 있는 폐가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지역에 남아있는 많은 공간을 전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또는 체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그곳에 상주 내지는 서울에서 파견되어 나가는 많은 프로그래머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원장님은 물론이겠습시다만 리 단위로 이장님까지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프로젝트다, 이런 이름으로 리 단위로 과연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향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많은 의견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는 누구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는 적어도 정신적인 영역인 문화로는 그런 불균형을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우리 원장님과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문화가족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유 장관님께서 예산이라든가, 각종 배려 이런 걸 많이 하여야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는 문방위원장이 문화원 예산을 올리라는 압력을 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도 16대부터 문방위에 있지만 정말 문화원 예산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성남의 분당 출신인데 성남의 한춘섭 원장님도 여기와 계신 것 같은데, 한원장님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 가면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조차도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많고 적은 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모든 문화행사, 예를 들면 3·1절 기념식이라든가, 개천절, 정월 초하루의 해맞이 행사 등을 전부 문화원이 주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 주도로 하던 것을 민간 주도로 바꿈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의 호감도도 커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문화원장님께서 전부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점차 많이들 민 주도로 바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오는 예산은

정말 문화원 예산만큼은 한 푼도 깎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히려 플러스를 해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올리면 예결위라는 과정이 있고, 예결위에서 또 삭감이 되고 그러나 국회의원들께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원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이 곧 문화에서 나옵니다.

여기 또 홍재형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홍재형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재무장관을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존재이시고 야당 의원이시지만 야당의 재경통으로서 한 말씀하시면 예결위원들도 꿈쩍 못하고 의원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한성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신현국 문경 시장님도 오셨지만 요즘 문경의 지방문화가 눈에 뵈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이한성 의원님의 노력의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지방문화와 향토문화 그리고 전통문화 향상에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장관님이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이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문화원 탐방

농부의 마음으로 문화의 씨앗을 심는 부평문화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돌더니
바야흐로 가을이다.
한적하게 거리를 걷거나
미뤄두었던 책을 읽고 싶은 계절이지만
부평문화원에서는
한가하게 계절타령이 있을 리 없다.
평일 오후 여러 준비로
마음이 바쁜 부평문화원을 방문했다.



서소연(인턴), 윤지원(사무과장), 조성돈(사무국장), 박연수(지역센터담당자), 이소연(주임), 허문명(부평문화원장), 김신애(직원), 송미성(인턴), 최문형(직원)



일 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일 년

문화원 사무국으로 들어가니 벽에 붙어있는 월간 스케줄 표부터 눈에 띈다.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일정이 잡힌 날이 여러 날이다. 축제 하나 하고 나면 이틀 후가 공연, 그 이후에 또 축제. 아무래도 가을이니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축제가 한창으로 열리는 모양이다. 부평문화원의 특이한 축제가 있다 길래 물었더니 재미있는 대답이 나온다.

“곧 열리는 청소년 예술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들이 만들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축제인거죠.”

보통 문화원에 관한 인식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 보수적인 단체라는 오명을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과장은 말한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젊은 일들이 많다. 문화원 중 부평은 특히나 더 그렇다. 문화원의 일이 어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일 뿐이라. 일 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문화원이다. 하루하루 일처리를 하다보면 일 년이 금방 간다고.

부평풍물축제, 부평 청소년 축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전통문화체험 워크숍, 해외 자매도시 조형물 제작 및 문화 예술 교류 등 빼곡히 적힌 문화원 스케줄이 보여주듯이 문화원은 매일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찾아오는 문화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원

“다른 건 필요 없죠. 문화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 문화관련 기관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말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해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빠르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문화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면 주민들은 절대 안 와요. 그들보다 한발 빠르게 더 앞서서 문화를 이끌고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해야 하죠.”

조성돈 국장은 단호히 문화원은 지방문화의 선두가 되어야 하고, 구심점이 되어야 한단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화사랑방’ 운영이다.

이제는 문화원이 주민들 방 안까지 직접 가야하는 시대란다. 현재 부평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은 두 곳이다. 갈산 2동의 부평문화사랑방과 부개1동에 위치한 부개문화사랑방이다.

예전의 사랑방이 그러했듯 이곳도 지나는 손님을 모시는 방이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연중 무휴 문화공연이 열린다는 것. 매주 한 회씩, 두 곳의 사랑방에서 공연을 치러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공연표를 보아도 그냥 한 번씩 열리는 사소한 공연이 아니라 한 공연 한 공연 알차게 짜인 공연이다. 사랑방이 생김으로 인해 주민들은 산책 나오듯이 옆 집 가듯이 문화공연을 즐기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문화원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이 뿐만 아니라 매해 치러내는 각종 축제와 행사, 연중 열리는 문화강좌까지 문화하면, 문화원을 연상할 정도가 되었다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교육 기회 필요

지금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문화원 중에 하나가 된 부평문화원도 처음부터 이런 곳은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이 몇 달씩 체불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월급도 몇 달씩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힘



이 된 것은 바로 '문화' 였다고 한다. 일이 도리어 이들의 힘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었다.

“정말 상황이 열악했죠. 그렇지만 저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했어요. 문화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됐어요. 즐거웠고 우리 문화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가 확대되는 것이 더욱 보람되었죠.”

조성돈 사무국장의 말을 허문명 원장은 받는다.

“우리 문화원이 경제적인 취약점이 있었지만 그 때 이미 우수문화원이었고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문화원이었어요. 그런 저력은 바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에서 나오는 거죠. 문화원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해요. 우리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 덕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합회 차원의 수준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성돈 사무국장이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콘텐츠 개발해야

“문화원이 고질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경제력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 월급이 체불될 정도로 문화원은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도 경제적 기반이 잡히고 성장한 문화원이 아닙니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지금의 문화원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지금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시의 웬만한 축제는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고 주민들도 문화원에서 한다, 하면 믿고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지역의 기업과 연계되어 서로 윈윈(win-win)합니다. 경제력과 문화력을 나누는 일이에요.”

문화원이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말하는 허문명 원장은 문화원의 경제력 보강법으로 기업과 자매결연 맺는 방법을 귀띔한다. 물론 이것은 문화원 자체가 어느 정도 내실이 강화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아침마당 강좌를 통해서 인천 굴지의 내로라하는 기업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통해 그들의 마인드를 문화적으로 심어준다고 한다.

능동적 접근을 통해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문화를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는 부평문화원이다.

이들의 빠른 행보에 부디 큰 장애는 없길, 또한 지방의 225개 문화원도 함께 가는 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문화원을 나섰다. 문화원의 벽찬 포부만큼 맑은 가을하늘이다.

1. 서예교실
2.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3. 기타교실





특별기고

한 젊은이의 몽골답사기





이 글의 제목에 여느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필자의 좁은 소견에서 비롯한 위험성을 줄이고 담백하게 글을 소개하고자 함을 표명하기 위함이다. 학부 4년 동안 한국의 민속에 관심을 갖고서 수업과 답사를 통해 '민속 걸핍기'를 공부하고 시각을 넓히고자 몽골의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2008년과 2009년 여름방학을 통해서 두 차례 몽골을 다녀오게 되었다.

2008년 7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Ulaanbaatar)와 아르항가이(Arhangai) 아이막(aimag)과 몽골제국시대의 수도인 하르호름(Khar khorin)을 다녀왔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나담(nadam)축제가 포함되어서 수도에서 펼쳐지는 나담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몽골에서는 1921년에 들어선 공산정부가 청(淸)나라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룬 7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전통민속축제인 나담축제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나담 기간 동안에는 몽골 전 지역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또한 2009년 8월 15일에서 9월 11까지의 18일 동안은 서(西)몽골 지

역인 알타이(Atai)와 홉드(Hovd) 아이막(aimag) 몽흐하이르항(Monkh hairhan) 솜(sum)과 자브항(Zavhang) 아이막(aimag) 오토공(Otgon) 솜(sum)을 다녀왔다. 아이막은 한국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된다. 특히 몽흐하이르항 솜에서는 소수 민족 중의 하나인 오랑하이(urianhai)족을 만나볼 수 있었다. 2009년에 다녀온 답사는 자동차로 약 4000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필자가 다녀온 곳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한국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낯선 곳과의 만남, 무엇보다 정주문화에 익숙했기에 유목문화와의 만남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고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주위 선배들로부터 기행문이란 무식할 때 용감하게 쓸 수 있으니 얼른 투고해보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얻고서 거칠게나마 글을 풀어보고자 한다.

몽골이라는 국가가 국내에 언급이 되면서 그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은 바로 칭기즈칸과 13세기 몽골제국시대, 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나는 같은 몽골로이드(Mongoloids)계통이라는 점과 DNA 유전자의

Mongolia



유사성,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형성된 한민족 북방기원의 담론들, 고려와 원나라와의 역사적 교류, 푸른 하늘과 초원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현대까지 잘 전승되고 있는 전통 유목문화—물론 이는 정주문화에 국한된 민족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등의 이미지일 것이다.

반면에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문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몽골은 다문화가정의 머느리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몽골의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인데, 그 중 1%에 해당되는 약 3만 명 이상의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 중이다. 몽골 전체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그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서울의 동대문운동장역 부근에는 '몽골타운'이라는 재한몽골인 공동체를 위한 상업 공간이 형성되었고 광진구 광장동에서는 재한몽골인들의 나담축제가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다.

나담축제는 여름에 행하여지는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 스포츠 축제로 만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유목 생활에서 필수적인 가축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이다. 주로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겨루어진다.

광진구에서 펼쳐지는 나담축제도 말달리기 종목만 빼놓고는—경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에— 현지 나담축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씨름(bukh)을 할 때에도 전통 복장을 갖추고 그들 나름대로 민속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서울의 광진구뿐만 아니라 수원, 의정부, 남양주, 대구, 제

4

5



주도 등에서도 나담축제가 열리고 있다. 민속학 공부를 하면서 재한외국인의 삶과 다문화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한몽골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몽골에 가서 현지 문화를 접할 필요가 있었다.

왜 그렇게도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의 축제까지 선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몽골로 출발하게 되었다. 몽골에서 비춰지는 한국은 어떠한 나라일까? 몽골에서는 한국을 솔롱고스(Solongs)라고 부른다. 솔롱고는 무지개라는 뜻으로 한국은 무지개가 뜨는 나라이다. 단어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무지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몽골인들 사이에 무지개는 좋은 의미로 밝은 이미지나 아름다운 것으로 통용된다고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해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2008년과 2009년 울란바타르에서 느낀 한류의 바람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시내에 한국 음식점은 80여 곳이 넘었고 식당에는 몽골교민들보다 몽골 손님들이 더 많다고 한다. 몽골 분들의 김치에 대한 사랑은 일본 분들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몽골의 기름진 음식과 김치가 조화를 잘 이룬다고 생각한다.

실제 몽골 고급 레스토랑에는 사이드 메뉴(side menu)에 김치가 있을 정도이다. 음식만이 아니라 TV의 황금 시청률 대에는 한국 드라마가 주로 편성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한국 매스컴에서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또한 시내의 도로에는 녹지로 깨끗하게 조성된 서울의 거리와 남양주 거리가 있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울란바타르와 맺은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남양주 거리는 2001년 남양주시와의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남양주에는 몽골문화원이 울란바타르에는 남양주 문화관이 개관되어서 현지에 양국 문화 교류의 가교로 활용되고 있다.

양국에 관한 문화교류는 ‘몽고풍 고려양’이라는 말이 생겼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민속학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 필자가 다녀온 흠드지역 몽호하이르항 솔에는 몽호하이르항 산(山)이 있는데 만년 설산(雪山)으로 주민들은 산을 숭배해 왔다. 산에는 여신(女神)이 있는데 항상 25살의 나이에 머물러 있는 알리아 형거르(alia hongor, 문자 그대로 아리따운 순결함)라는 신이고 알타인 사브닥(altain savdag, 문자 그대로 알타이의 신령)이라는 모든 자연을 주관하는 신령이 있다.

또 다른 신으로 몽골의 모든 산들의 주인이라고도 하는 알타이 산의 흰 할아버지, 체렝둑(tserendug)이 있다. 하늘 · 땅 · 물 모든 자연에 정령(精靈)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우리의 민속신앙관과 유사하다. 이곳에서도 산신제(山神祭)로 볼 수 있는 오보제(ovoonii tahiil)를 지낸다. 오보(ovoo)는 우리의 서낭당과 비슷하기에 이미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보제를 때르 무르곤(deer morgono, 문자 그대로 위에 절한다)이라고 표현한다. 일 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 각각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에 우유차(suutei tsai)를 만들어서 첫술을 몽호하이르항 산신께 올린다. 특히 우유는 매달 9일 19일 29일에 9번 바치는데 이는 옛날부터 숫자 9를 좋아하고 복이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



한 가정신앙은 집집마다 다른 양태를 보여준다.

오보제는 여성이 참가할 수 없는 금기가 약하게 보이고 오보 주변은 성역(聖域)이므로 살생을 금지하는 점, 제사 택일이 하지(夏至) 전의 6월 흰 용(龍)날에 한다는 점, 제물? 제의 순서 등은 한국의 민속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가정신앙에 관련해서도 가정 신앙의 주체는 주부에게 있다는 점과 결혼 후 불(火)의 신에게 드리는 신앙, 고수례 행위,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고슴도치의 가죽을 문 앞에 다는 것은 한국에서 얼마나 가지의 기능과 비슷하다.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양고기 칼국수로 볼 수 있는 코릴타술(curiltei shul)과 가축의 젖을 발효로 한 술인 시민 아르히(shimiin arhi)는 우리의 시골에서 솔뚜껑을 거꾸로 엮고 찬물을 부어 소주를 증류시켜 내리는 방법과 유사하다. 필자가 먹었던 아르히는 야크의 젖을 증류시켜 응집되어 떨어지는 맑은 술이었다. 우리나라 소주 내리는 법이 몽골로부터 건너왔다는 것은 설령탕과 타락죽(駝酪粥; 조선왕실의 보양식. 몽골의 타락(torak)에서 기원한 음식. 몽골에서는 유제품 요구르트이나 한국에서는 쌀가루와 우유를 섞어 만든 죽으로 변함)과 함께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상도 방언에서 소주를 '아래기' 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배운 몽골의 민속을 소개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민속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대상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찾거나 문화 전파나 변화를 논하기는 힘들 것이다. 변수통제가 확실하지 않은 문화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문화공동체들의(한국과 재한몽골인) 민속 전승의 주체들과 향유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타국에 나가서 이(異)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즉 타인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상당히 철학적인 공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욕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에 앞서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문화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시선과 주장과 이익을 논리적·합리적으로 앞세우기 이전에 문화라는 큰 틀에서 그들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민속에 대한 이해가 다문화공동체 사이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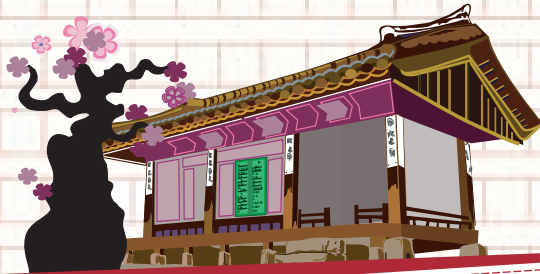


심효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 전공

1. 오보제
2. 몽골나담축제 - 2008년 울란바타르 몽골나담축제의 모습
3. 재한몽골인 나담축제 - 2009년 서울 광진구 나담축제.
4. 씨름(bukh)경기에서 그들의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
5. 답사 코스 - 붉은 줄은 필자가 다녀온 4000km 대장정의 답사 코스이다.
6. 남양주 거리와 문화원 - 울란바타르 남양주 거리에 위치한 남양주 문화원
7. 오보제
8. 시민 아르히 - 술을 얻는데 노력이 들어 고급술로 알려졌지만
9. 술통고스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설탕 내어주는 주인 분
9. 몽흐하이르항 오보 - 뒤에는 만년 설산인 몽흐하이르항 산이 보인다.

문화광장

실존 인물은 어떤 연유로 마을신(神)으로 모셔지게 된 것일까?



여행이나 마을 조사를 목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은 물론이거나 산골 마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교회 건물과 함께 십자가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와 십자가처럼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당집이다. 당집은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처(信仰處)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었다. 당집은 마을 사람들의 제의 공간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모시고 있는 신(神)이 머물러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한 마을의 당집에 모셔져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험한 나무와 바위 같은 자연물과 인물신(人物神)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당집에 모셔져 있는 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문·자연환경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집에 모셔져 있는 인물신은 신화 속에 나오는 허구적인 인물에서부터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까지 매우 다양하다. 허구적인 인물신이라는 함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인물이 신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산을 관여하고 있는 산신님, 바다의 용궁에서 살고 있는 용왕님 등이 대표적인 이들 인물신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당집에서 모셔진 허구적인 인물신은 특정한 명칭이 없이 ○○할아버지(할머니) 등으로 불리는 신들을 말한다. 가령 전라도의 당산할아버지(할머니)신, 경상도에서 부르는 골맥(막)이신, 경기도 도당곳에서 보이는 도당할아버지(할머니) 등이 모두 허구적인 인물신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신은 실존 인물신 혹은 역사적 인물신 등으로 부른다. 허구적인 인물신에 비해 빈도수가 많지 않으나, 실존 인물이 신으로 모셔진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공민왕과 최영 장군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이외에, 관우·전횡 등의 중국의 실존 인물이 신으로 모셔져 있다. 실존 인물이 신으로

로 모셔진 사례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어부·상인 등이 모시는 마조(馬祖)라 불리는 신이 대표적인 실존 인물신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다양한 인물신이 모셔져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마을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신사(神社)에 한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이 지역(마을) 신으로 모셔져 있는데, 신사에 모셔진 인물신 중에는 임진왜란 무렵에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陶工)도 있다. 실존 인물 가운데에서 마을의 신으로 모셔진 대표적인 인물은 최영 장군을 비롯해, 남이·단종·임경업·손돌 등이 있다. 최영은 황해도의 덕물산과 남해안 여러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으며, 남이는 용문동의 마을신으로 모셔져 있다. 단종은 영월을 중심으로 정선과 태백산 등 강원도 일대에서, 임경업은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다. 이들 인물신 이외에도 어청도·외연도에는 전횡장군이, 강릉지역에는 김유신과 정우복 등의 인물이 지역의 신으로 모셔져 있다. 이들 인물신을 살펴보면 왕(임금)과 장군이 대부분이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에 모셔져 있는 이들 인물신을 신으로 모시게 된 연유는 각각의 인물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여러 인물이 신격화된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인물신 중에는 한 시대를 품미했던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과 단종처럼 임금이 모셔진 경우도 있고, 최영·남이·임경업 등과 같이 용맹한 장군이 신으로 모셔져 있다. 특히 지역에는 장군이 유독 많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장군이 지니고 있는 용맹함과 남성다움은 마을을 수호(守護)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독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한 인물이 많다는 점이다. 이성계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최영, 유자광 일파의 모함으로 처형된 남이, 김자겸에 계략에 의해 살해당한 임경업, 임금을 위해 안전한 항로를 택했지만 임금의 오택로 칼에 목을 베인 손돌 등이 모두 그러한 인물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이들 인물이 마을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怨恨)

을 제의(제)를 통해 달래주어 그들의 혼이 무사히 저승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해 주기 위해서이다. 단종의 경우처럼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주민들이 그에 대한 동경과 존경으로 마을신으로 모셔지게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인물 중에서도 후대에 신원(伸冤) 내지 복원(復原)이 된 인물이 마을의 신으로 모셔진 경우가 많다. 이는 비록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후대에 그의 행동이 제대로 평가받아 주민들에게 더더욱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인물의 신분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억울하게 죽은 인물인 경우에도 평범한 인물이나 신분이 미천한 인물보다는 높은 신분을 지닌 인물이 마을신으로 모셔진 경우가 많다. 억울한 죽음 당한 김덕령(金德齡) 장군은 출신 신분이 미천한 이유로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점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안주의 욕구로 인해 탁월한 계층의 인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인물 이외에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억울하게 죽은 다양한 인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들 인물이 마을의 신으로 모셔지게 된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들 인물신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단종과 관련된 신앙이 영월을 중심으로 충북, 단양군, 강원도 산척, 정선군, 태백시 등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어린 단종의 유배지가 바로 영월 지역이었기 때문이며,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는 남이 장군의 경우에도 그가 처음 출진(出陣)할 때 군졸을 뽑아 훈련시킨 곳이 용산부근이었다. 인물신과 지역의 연관성은 조선 중기 인물인 임경업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신으로 모셔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임경업이 중국을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지역민에게 조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물신과 지역 간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이들 인물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행동과 삶의 태도이다. 즉 인물신은 주민들(지역민)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금 보기를 돌 같이 여기면서 청렴결백(淸廉潔白)하게 한 평생을 산 최영 장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성격을 지녔던 임경업 등이 모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인물신과 지역 간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중, 또 다른 하나는 실존 인물이 마을이나 국가에 큰 업적을 남겼거나 지역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생전에 걸출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죽은 이후에, 그의 공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영혼을 당집에 모시고

제의를 올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진 최영 장군이다. 이곳에서 그가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 왜구로 인하여 지역민의 재산의 피해가 많아 민심이 흉흉할 때, 그가 남해군 지방을 순찰하면서 이곳에서 왜구를 몰아내는 큰 전과를 거두었고, 주민들은 추모의 뜻과 그 공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그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해 신으로 모셔지게 된 경우를 여러 지역에서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젠정(肥前町) 다카쿠시(高串)의 마스다신사(増田神社)에 모셔져 있는 마스다 케타로(増田敬太郎)이다. 그가 이 지역의 마을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사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 콜레라가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는 자기 몸을 헌신하여 환자를 후송하는 일 등을 하다 그만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다카쿠시의 콜레라는 내가 저 세상으로 젊어지고 가겠다.”라는 유언을 남기며 마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가 죽은 이후 마을에서 콜레라가 사라지게 되었고, 훗날 주민들은 그를 신사에 모시고 제의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실존 인물이 마을의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요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점과 함께 그런 그가 특정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내용은 실존 인물의 반듯했던 살아생전의 삶의 모습과 그가 지역사회를 위해 큰 업적 내지 헌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이 실존 인물이 마을의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인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는 평소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서 마을과 마을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존 인물이 신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월간 학부모, 2008년 1월호 실린 글)



서중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화돌러보기

오랜 활자의 자취를 따라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앞에서 아이들이 건물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있다.

퀴즈를 하나 맞춰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을 댈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문제의 정답은? 직지. 그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직지는 꽤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한번 길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아무개처럼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을 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랑, 직지를 만날 수 있는 고인쇄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인쇄 시연하는 어린이

흥덕사지와 직지

가을의 벌이 흥덕사지의 잔디를 살금살금 건드는 오후다. 아이들은 뛰어 노느라 건학은 뒷전 같아도 때때로 직지가 새겨져 있는 건물을 들여다보거나 저희끼리 직지의 이름을 외우기도 한다. 한가한 오후다. 이렇듯 아이들에게까지 친근한 직지는 곧잘 알아도 흥덕사를 잘 아는 사람은 또 드물다. 흥덕사가 각광을 받은 것은 바로 직지 때문이었다.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이 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이곳은 터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직지」를 비롯,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의 중흥지로 알려져 있다. 흥덕사지는 직지의 요람으로 1985년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후 1992년 고인쇄박물관도 개관하게 된 것이다.

고인쇄박물관은 직지와 관련된 '직지와 흥덕사지', '직지금속활자공방' 뿐만 아니라 인쇄문화실(신라 · 고려 · 조선시대의 인쇄문화) 동서 인쇄문화실(동양 · 서양 · 현대 · 미래의 인쇄문화) 영상관, 시연실, 인쇄기기실, 고인쇄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인쇄' 전반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직지금속활자공방 재현관'은 사람 크기의 모형이 움직이며 설명을 해주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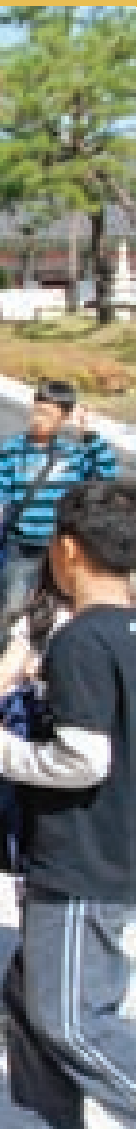
직지의 유래와 현재

인쇄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는 하나 박물관을 찾은 이들은 특히 직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직지의 본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인데 줄여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등으로 불리운다.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 전시회에서 「직지심경」이라 소개되면서 한때 잘못 불리기도 하였다. 상, 하 두 권으로 이뤄진 직지는 상권은 전해지지 않으며 하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화실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취암사에서 만들어진 직지의 목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영광 불갑사에 있어 금속활자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한다. 백운화상의 제자인 석찬과 달잠이라는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한 것이 직지의 시작이다.

실물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다가 1972년 '세계 도서의 해'에 전시회에 출품되어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 2000년, 직지를 알리고자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하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직지가 등재됨으로써 가치를 널리 알렸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직지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 알리며 교육의 장으로 평소 직지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것은 한 박물관의 노력, 몇 사람의 끈기가 아니라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일 것이다. 휴일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나들이도 좋지만 별 좋은 계절, 기회가 된다면 청주의 고인쇄박물관에 들려보아도 좋겠다.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문화 지킴이로써 아이들의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는 날이 되면 더욱 좋겠다.





‘직지 지킴이’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인터뷰



• 직지 세계화 및 국제교류 계획은

2004년 4월에 제정된 유네스코 직지상(UNESCO Jikji Prize)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기록유산의 보존 활용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직지상을 수상한 기관은 자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 및 이 유산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체코국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에 특별실을 설치하여 직지와 유네스코 직지상을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자 기관을 방문하거나 연수를 위해 찾아온 세계 각국의 전문가 및 관광객들에게 직지 특별전 시장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직지상을 매개로 하는 외적인 직지세계화는 물론 우리 박물관에서는 해외 특별전과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VANK)를 통한 세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으로 우리 박물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중국 인쇄박물관, 일본 돗반인쇄박물관, 벨기에 플란틴모레투스 박물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를 통하여 청주가 낳은 세계적인 유산인 직지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직지문화특구의 조성 계획 및 일정은

청주시에서는 『직지』가 갖는 상징적 가치를 바탕으로 2000청주인쇄

출판박람회개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02년부터 격년제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 개최, 그리고 2004년 이를 기념한 유네스코 직지상(UNESCO Jikji Prize) 제정과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시상식 개최 등 직지세계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2003년 직지세계화 전략 및 2004년 직지문화지구 조성관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흥덕사지를 중심으로 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직지문화지구 조성을 공론화시켰다.

『직지』가 갖는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해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와 연계하여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창출, 직지문화상품 개발·판매는 물론 침체되어 있는 흥덕사지 주변지역을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대규모 관람객 유치 및 소비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지문화특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7년 ‘청주직지문화특구’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주시에서는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 문화 인프라를 특구기반조성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직지 및 고인쇄 문화 가치의 체계적인 정립을 통한 직지문화특구의 이론적 토대제공으로 2007년~2010년까지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직지 홍보 방안은

우리 박물관은 그간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직지를 바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 규모 행사 및 국제행사장에서 실시한 직지순회전과 병행하여,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박물관과 지역 대표박물관에 직지특별기획전과 특강을 실시 학생과 전문인들에 대한 국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통책 웨메기를 체험하는 아이들

청주에서 설치한 청주공항과 국립서울과학관 내의 직지홍보관을 비롯,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교과서박물관 등에 설치된 직지와 고인쇄 관련 홍보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대한인쇄문화협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추가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청주권 소재 대학에 직지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직지의 가치와 한국의 고인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지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직지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해온 직지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문화학교 운영, 고인쇄 책 만들기 강좌 운영, 어린이 직지인형극 공연, 어린이 찍기 그림대회 개최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고인쇄박물관 자체의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와 그 탄생지인 청주가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직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은

청주시 산하 기관인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직지를 사용한 문화 상품을 2004년 4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는 60종의 직지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4억 9천의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는 직지 특구내 상품 개발업체 입주를 유치하여 더 좋은 상품 개발에 주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 마인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 세계유산을 이용하여 관광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주요 도시에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각 도시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후, 직지와 청주에 맞는 관련 업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특히 『직지』가 갖는 정보전달 매체 및 기록물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등 IT 관련 도시에도 벤치마킹을 하여 하이닉스반도체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 직지 찾기 운동 전개 방안은

청주시는 1998년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직지찾기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직지를 찾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 간행한 직지 필사본이 경상북도 영주 흑석사에서 발견되어 금속활자본 직지를 찾는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추진한 것과 같이 전국 주요 도시 개최 박람회나 대규모 축제 시 운영하는 직지홍보체험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직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직지 찾기에 적극 동참시키는 운동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청주·청원 소재 문중 고서 조사를 통하여 직지를 찾고,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등 전국 소재 향토사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직지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총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도 소재 사찰 문화재 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여 직지 찾기 운동에 내실을 거두겠다. 또한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 소장 전적자료 조사를 통하여 북한 내 소장되어 있을 금속활자본 직지를 찾고자 한다.

• 청주고인쇄 박물관을 어떤 박물관으로 만들 예정인가

관람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박물관 전시실을 개편하고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 수준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시민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열린 시민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셋째, 시민들이 직지 등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직지 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체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그 외에도 1인 1책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자기만의 소중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럽인쇄협회 및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등 세계적인 인쇄박물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직지 등 한국의 우수한 고인쇄문화를 널리 홍보하겠다.

학 산 문 화 역 사 마 을

가 꾸 기 사 업 을

되 돌아 보 며 . . .

2005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뜨거웠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근 8개월여에 걸친 계획수립과 조사, 기획서 작성 그리고 심사 과정을 거쳐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강릉의 학산 마을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3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보람과 성과를 일구어낸 '학산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이루어졌다.



문 화 원 이 야 기

학산문화역사마을

목표를 향한 출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시작인 2006년 한해는 사업의 방향과 운영, 진행 등을 계획하고 협의하는데 보내야 했다. 이 과정이 예상 보다 길어진 것은 수많은 마을개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한 결과 충분한 준비와 경험 없이 달려들었다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보았고 최악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열의와 기대수준이 매우 높았기에 현장의 상황과 기대치를 맞추는 데에도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했다. 더구나 마을가꾸기 사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학산은 1000여명의 주민과 여의도의 두 배에 이르는 5,711km²의 넓은 면적, 행정구역상 3개의 리(里)로 나뉘어져 있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대상지역 중 가장 큰 마을이다. 원래 학산 마을은 하나의 마을이었지만 1996년 마을의 규모가 너무 커 이를 3개리로 나누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96년 마을이 분리(分里)되었지만 누천년을 함께해온 주민들 대부분은 계속해서 '학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마을개발 사업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인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학산은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가 매우 강하여 이를 중심으로 뭉치고 협력하는 힘을 가진

마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대표들과의 많은 논의와 협의 끝에 비교적 쉽게(?) 학산 2리를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전체 주민의 동의와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했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작업들을 정리하고 본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계획하는 학산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다.

목표를 향한 발걸음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째는 학산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이 외부에 의한 수동적인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전문가의 양성이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단계부터 우리지역의 대학과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기만 조상훈 두 전



문위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기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과정은 순탄하지 많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노력과 열정은 뜨거웠지만 지난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논의 되었던 많은 구상과 논의들을 구체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더욱 큰 문제는 현실성이 접목되지 못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졌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결과물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에 많은 조정과 수정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초 2년으로 계획된 사업은 이미 종료시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직 계획서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주변의 염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개발 사업은 한 마을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사업 기간을 맞추기 위한 진행은 실패의 위험이 너무 높은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문화원연합회의 노력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이렇듯 연구용역의 내용과 씨름하는 와중에서도 학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

민 교육과 성공적인 마을 개발 사례들을 찾아 현장을 답사하고 그들의 노력과 진행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현장체험이 그것이었다.

2008년은 지루한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해로 학산 전체가 1년 내내 생동감으로 넘쳐난 한해였다. 먼저 환경조성사업으로 낡고 위험한 학산 2리 마을회관을 학산문화역사마을센터로 리모델링하고, 학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볼품없이 세워져 있던 조립식 건물인 1리 공판장을 리모델링하여 100% 마을에서 생산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제조 판매 하는 '학산오가닉스토어' 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3리 구판장은 동해고속도로 '학산' IC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간이 휴게소의 역할과 마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산마루' 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히 환경조성공사는 마을의 인문·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위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섭외하여 설계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효율적인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을 가질 수 있게되었다.

이밖에도 학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히 쉬면서 학산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테크를 보완확장하고 학산의 자부심인 무형문화재 '학산오독떼기' 와 뒤에 소개할 마을 극단이 만든 마당극을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정비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시원이며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마을 서낭당의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지역 중 유일하게 마을의 공간을 디자인 하는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학산문화역사마을 이와 각종 안내 및 표지판 간판 등의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업초기부터 구상했던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13개 지역 어느 곳도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거나 진행한 곳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역사마을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정관의 작성 그리고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들을 처리하면서 하나하나 법인의 체계와 구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진한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 소유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 종료 이후의 법인 운영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의 특성상 재산의 취득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토지의 구입은 전례가 없었기에 구입의 필요성을 활용 가능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취득 재산

에 대한 소유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법인 정관에 취득재산의 소유와 운영 그리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혀 놓음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 드디어 6,175㎡의 농경지를 구입하고 이곳에 단오를 체험할 수 있는 창포와 농사체험을 위한 각종 작물 등을 심고 가꿀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행은 비록 준비과정의 지체와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든 부분이 주민들과의 이해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기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특히 법인 설립과 재산 취득 과정은 이후 다른 지역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하나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학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과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거쳐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었다.

학산을 상징하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이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산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서서...

마을을 알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관상용 양귀비 꽃을 재배하고 이를 축제로 연결한 '양귀비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8년 첫해에는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강릉과 인근 지역 사람들이 주로 다녀갔지만, 2009년 축제 때는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야심작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일명 '학산 오랍들이'라는 극단을 창단하고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재미있게 극화(劇化)한 마당극 '학산풍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극단의 배우는 마을의 몇 안 되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젊은 아낙과 중년의 부인, 그리고 집안의 가장들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20여명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함께 모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밤마다 이를 연습 하는 과정 속에서 난생 처음 연극이라는 것을 접해 본 사람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어색한 아마추어에서 어느 순간 능청스러운 프로 배우로 변신해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극 '학산풍경'은 마을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고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2009년 8월 6일 학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채로움과 훈훈함이 배어나오는 축제같은 준공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학산문화역사마을은 본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 하였으며,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경험의 노하우를 쌓았다 그리고 여기에 이를 운영할 법인 조직과 운영의 기반이 되는 체험공원도 갖추었다.

이제 강릉문화원은 사업의 중심에서 조력자로 그 역할을 바꾸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역할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유치하여 '학산오랍들이' 극단과 공공디자인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학산문화역사마을의 미래는 주민들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 마을 사람 모두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합심하여 마을을 가꾸어 나갈 때만이 문화역사마을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학산 오랍들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심성과 열정을 알기에 그들이 잘 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새 원사 입주를 자축하며...

진도문화원

‘양무골’시대의 개막

장소가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장소가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자유당 말기 미국의 공보관을 본따 시작한 진도문화원은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문화전당의 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 선상에 섰다.

1965년 정식 법인등기를 마치기전에 벌인 뜻있는 선배들의 문화활동 6~7년을 계산에 넣는다면 진도문화원은 활동을 시작한지 반세기만에 진도 옛 중심을 벗어나 남천교 건너 진지등허리(양무골 어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봉학동 구원사는 교동리545-2번지에 1973년에 준공했었다. 조선시대 군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군민들의 활터로 쓰인 사정사이에 자리 잡은 진도문화원은 비록 중심과 떨어져 있었으나 진도 전통예술과 민속을 선양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68년 소치문화제를 시작해 시·서·화의 대중화에 공헌하고 북놀이, 상여소리, 강강술래, 도깨비굿, 소포농악, 차첨지놀이, 진도아리랑, 대동들노래, 남한산성도채기야, 닻배노래, 물래노래, 명다리굿, 용호리 호식굿 등 많은 민속예술을 발굴, 남도문화제에 출전시키고 무형문화재 지정의 인연을 맺어주었다.

문화학교를 통해 민요를 보급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교양을 확산 시켰으며 덕병장승제, 평화제, 보름세기



문화원 이야기 진도문화원

풍속재현, 남도민요경창대회의 유치, 연날리기 대회 등 주로 전통예술 및 민속의 전승과 선양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전통문화 중심 활동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문화원의 주요사업을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전승 및 선양과 교류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새로 옮긴 원사는 동외리 1195번지로 옛 읍성 안에서 볼 때 서울의 강남과 비견할 남천교 건너 앞산의 산 기슭이다. 5년 전 국비 3억원을 보조 받았을 때 우리는 옛 객사 터 앞에 세워진 구읍사무실의 개수 후 입사를 희망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새원사는 우리 희망을 무게고 이 자리로 결정되었다. 다른 지역의 새문화원들에 견준다면 건축 면적에서는 작지만 외모나 공간 배치에서는 아쉬움을 면하게 되었다.

오늘 이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탠 모든 이들에게 진도문화원 회원들은 진심으로 감사한다.

장소가 활동을 제약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화원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활동을 하려면 주민생활공간의 중심에 있어야한다는 소신은 이제 쓸모 없는 환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더라도 싫던 종던 문화가족들이 받은 새원사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새로운 진도문화전통을 만들어 가야할 보금자리로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원사는 읍내 생활중심을 떠나 외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읍내들목의 외곽도로에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들목에 자리잡은 진도문화원은 종던 싫던 그 자리에 걸 맞는 새로운 뭇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장소의 단점보다 장점을 잘 살려나가야 할 역발상의 지혜를 모아야겠다.

철미광장에 있던 구읍사무실이 진도읍 사람들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주민과 함께 문화를 만끽 할 만한 장소였다면 새원사는 비록 또다시 진도읍의 외곽도로변으로 옮긴데 따른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새원사는 진도의 중심부인 진도읍 들목의 외곽도로상에 있고 향토문화회관 주차장과 연접해 있으면서 2~3년 안에 진도 문형문화제 전수관과 문화단지를 이루게 예정 되어 있다. 외지 사람들이 찾기 쉽고 읍 밖의 군민들이 승용차로 오기에 안성마춤이다. 읍내 사람들도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는다면 건강에 도움을 줄 만한 보행거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진도문화원이 전통민속예술의 발굴과 선양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면 앞으로 50년간의 과제는 흔히 말하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진도의 새기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40년 뒤 한반도는 9.8%의 외국인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타민족사회문화에서도 환영받을 문화의 개발이 필요하다. 법이 정한 문화원사업을 보면 ⑦항에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⑨항에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도문화원은 소치미술제를 주관하고 남도민요경창대회를 주관하기도 하다가 예총이 이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청소년 글짓기나 글씨쓰기, 예절교육 등도 이를 주관할 만 한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새 민간 단체들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4년 전부터 노인일손돕기의 일부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것도 이 사업을 주관해야할 단체들의 전문성이나 기획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한 일이지만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가 육성된다면 넘겨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진도인구 3만4천명 중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만명을 넘어선 진도에서 여가문화 활동의 가장 큰 대상은 노인 계층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취미자체를 직업화하여 생활과 문화의 구분이 별로 없다. 이에 견주어 노인세대는 취미나 여가 보다는 생계해결을 위한 생활에 매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노년복지를 위해 여가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뿐 아니라 치매예방을 위해서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활동이 문화원이 담당해야할 사업의 하나이다.

나는 누차에 걸쳐 문화복지는 미래 복지의 마지막 단계라는 주장을 해왔다. 끼니를 잇고 건강한 것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바라는 것은 정신적 만족이므로 이 분야의 복지가 문화복지인 것이다.

문화산업의 진흥

엇그제 전남대학교 산림문화자원연구단이 산림청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도지역의 산림자원활용' 중간보고에서 일본 미야자끼정 아야마쵸(綾町)의 지역활성화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곳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에 달하고 있어서 과소지역으로 특별관리 대상지역이었다한다. 그런데 이곳은 유기농업의 농산물로 관광객을 맞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전통공예품을 제작해 관광기념품으로 팔고 지역식품과 술을 생산해 생활이 풍족해지는 성공사례가 되었다고 한다. 발표교수는 진도는 일본의 성공사례와 비슷한 지역여건을 갖고 있으나 이 곳 보다 더 큰 하나의 자원이 민속예술이라고 했다. 나는 이 같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진도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활동을 낭비활동과 동일시하면서 문화활동의 경제성을 무시해왔다. 이 때문에 문화원이 돈벌이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정도를 가지 않는다는 편견과 오해로 비난을 받는다. 오늘날 최고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공장근로자나 장사꾼이 아니라 노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문화산업자들이다. 체육까지 단순한 건강활동이 아니라 소득직종이 되어 있다. 진도노인들에게 문화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그 분야의 예능과 기능을 양성해야 한다. 나는 이 같은 신념으로 그동안 민요나 참여소리 문화학교운영을 통해 실버예술단을 만들었고 이 분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자체가 용돈벌이도 되는 문화산업활동을 시도해 왔다. 노인들의 옛 솜씨를 현대 감각에 맞추어 선진지시찰과 교육 및 경진대회를 통해 훈련 시키고 훈련된 솜씨로 만드는 공예품이 진도 관광 기념품으로 팔리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 아야마찌 처럼 공예전시장겸 판매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계속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오직 진도에만 있는 식물을 양묘하고 구실잣밤목이나 울금막걸리, 구기자막걸리, 해초물회 등 진도식품을 개발해 노인들이 보람도 맛보고 용돈도 되는 소득사업을 겸한 문화산업활동을 성공 시키는 것이 원이다.

이 같은 문화사업운동과 함께 세계화시대의 진도문화 진흥을 위

해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 외국문화를 진도에 접목 시키면서 보다 내밀한 향토문화자료의 집성을 완성코자 한다. 내년에는 군내 각 가정을 순회하면서 옛 자료들을 복사해 정리할 예정이다. 9월 18일 새원사 이사 기념식을 계기로 노인들의 은혼식, 금혼식, 회혼식 등을 권장해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족이 화목하는 문화를 마련할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장옷, 활옷, 족두리, 기러기, 사모판대, 사인교, 가마 등을 확보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노부부들을 위해 실버예술단이 무료공연을 실시할 것이다.

문화원 산하 실버민속예술단은 일요일이면 적막강산이 되는 진도관광의 모순을 바로 잡고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일요공연을 정례화 하겠다. 한편으로 문화원 마당과 인접한 향토 문화회관의 주차장을 활용해 파크스크린센터(Park - Screen center)를 운영해 영화관 없는 진도의 영화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영화관을 '드라이브인' (Drive-in)이라 하여 생활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다.

진도문화원은 끊임없이 새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진도 문화창조를 위해 진력 할 것을 다짐한다. 많은 문화가족들의 동참과 성원을 바라 마지 않는다.

김정호 진도문화원장

위의 글은 진도문화에 게재된 글입니다.



향 토 민 요 로 교 류 한 다

문 경 · 울 진 문 화 원

어 르 신 문 화 학 교 교 류 공 연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과 울진문화원(원장 전인식)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가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는 '땡땡땡! 어르신문화학교'를 주관, 각 지역의 향토민요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 22일 울진문화원에서 그동안 각자가 배운 각 지역의 향토민요를 교류 공연 하였다.



문 화 원 이 야 기

문 경 · 울 진 문 화 원

이날 행사는 전인식 울진문화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울진문화원 30명의 어르신들이 '십이령 바지개꾼소리'로 환영 소리를 하였다. 이어서 문경문화원의 80명 어르신들이 '문경소리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문경의 향토소리 '문경새재아리랑, 문경모심기소리, 문경방아소리, 문경 칭칭이소리' 등을 선보이고, 이어서 문경소리단의 남성 악기연주단이 풀룻, 섹소폰, 하모니카, 기타 등으로 신나는 대중가요 연주를 하고, 윤석구 가수의 지휘로 문경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 '문경재, 문경아가씨'를 불렀으며, 이어서 양 문화원의 어르신들이 '본조아리랑'을 합창으로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신상구 울진문화원 사무국장은 '문경소리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울진 팀도 문경처럼 배우고 익혀서 빠른 시일 내에 문경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소리공연단의 남상순 회장은 '오늘처럼 신나는 날이 없었다.'고 즐거워하면서, '문화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며, '문경소리를 통해 문경을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발전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니,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가슴이 뿌듯하다.'며 신이 났다. 문경문화원은 3년째 향토소리를 배우고 익혀 '문경소리공연단'을 만들었고, 울진문화원은 올해 향토소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였다.







여다 보기



색동저고리를 입은 대한민국과 비빔밥을 만드는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다문화사업,
2009년의 성과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산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이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리하고서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 할 것이다.

김구 <백범일지>중에서

2009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 116만명.

총인구 4,860만명 중 2.4%의 비율을 차지하는 이들은 2050년 9.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일민족 대한민국은 색동저고리처럼, 비빔밥처럼 여러 문화와 사람이 섞여드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원은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중점 다문화 사업인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지금, 10개월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자 한다.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1월~11월)

- 참여단체 | 20개지역 - 지방문화원 20개소와 한국어교육기관 21개소의 컨소시엄
- 참여인원 | 이주민 1,521명, 수업횟수 2,705회, 참여강사 160명
- 교육내용 |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연계교육과 문화체험

- 교육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외국인 근로자
- 교육기간 | 4월~10월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지역순회공연 (2월21일~3월 29일)

- 11개 시군, 12회 공연, 총 6,760여명 관람
- 한국문화원연합회 · 소리나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아생차문화축제 기행 (5월2일~5월3일)

- 프로그램 내용 | 하동차문화축제 체험, 차만들기 체험, 하동군 주요문화유적지 탐방 등
- 참여인원 | 183명(다문화가정 25가구)
- 참여문화원 | 8개원 - 부산금정, 여주, 강릉, 조치원, 부안, 강진, 사천, 남해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하동문화원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하동군 후원

다문화축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5월3일~5일)

- 참여내용 | 다문화 음식부스 운영 및 축제체험, 한국문화체험
- 참여인원 | 총 174명 - 부스운영 59명(이주민), 체험 93명(다문화가정), 인솔 22명
- 참여문화원 | 5개원 - 시흥, 홍천, 조치원, 강진, 남해
- 국립민속박물관 주최

2009년 이주민 한국어 ·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번호	시도	주관단체 / 컨소시엄단체	프로그램	
			한국어	문화이해
1	부산	금정문화원 / 동의대국문과	초급, 중급	모듬북
2		부산진문화원 / 동아대국어문화원	기초, 초급, 중급	사회적응교육, 노래 및 악기교실, 도자기공예 등
3	대구	동구팔공문화원 / 경북대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연극을 통한 상황언어교육
4	광주	전남대국어문화원 / 남구문화원	초급, 중급, 고급	사회적응교육, 요리, 공예 (점토, 비즈 등)
5	대전	대덕문화원 / 한남대한국어학당	초급, 중급	한국전통문화 교육, 요리 등
6	경기	시흥문화원 / 한양대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화과	초급, 중급	요리로 전하는 이야기
7		평택문화원 / 평택대다문화센터	기초, 초급	전통공예 (칠보, 석화)
8		포천문화원 / 상명대 한국언어문화교육원 / 포천다문화센터	초급, 중급	이주여성합창단
9		여주문화원 / 여주대	생활국어	미디어 영상교육
10	강원	강릉문화원 / 관동대국제교류원	왕기초, 기초, 심화	연극 (관노가면극)
11		평창문화원 / 관동대국제교류원	초급, 중급	다문화 아시아 모듬 합주단
12		홍천문화원 / 한림대한국어교육센터	중급, 고급	마당극 (사물놀이, 무용 등)
13	충북	진천문화원 / 청주대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고급	동화구연, 도자기공예 등
14	충남	연기문화원 / 충북대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한지공예, 요리, 전통무용 등
15		상명대국어문화원 / 이우내문화원	초급, 중급	한국생활문화 교육
16	전북	부안문화원 / 국민대교양과정부	초급, 중급	한국전통문화 교육
17		완주문화원 / 전주대한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한국전통문화 교육, 요리, 사진교육
18	전남	강진문화원 / 전남대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능력시험반	사회적응교육, 요리 등
19	경남	사천문화원 / 경상대국어문화원	초급, 중급	창작 마당극, 민요, 독처벌 가꾸기 등
20		남해문화원 / 경상대국어문화원	생활국어	공공미술 (벽화그리기)





"이주민 사업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안하고 싶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말을 교육이 시작된 4월부터 7개월간 20개소의 사업 담당자들에게서 1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다. 진정으로 열정과 최선을 다하였기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일을 만들어대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주민을 교육해야하고 사회적 이슈인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다보니 지역에서는 대상자인 이주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까지 붙어 수강생 모집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그나마 수업을 듣다가도 출산과 취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집안일로 결석하는 수강생도 많다. 그뿐이겠는가.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로 제출해야하는 많은 서류까지, 이쯤 되면 담당자들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할 일이다. 그래도 말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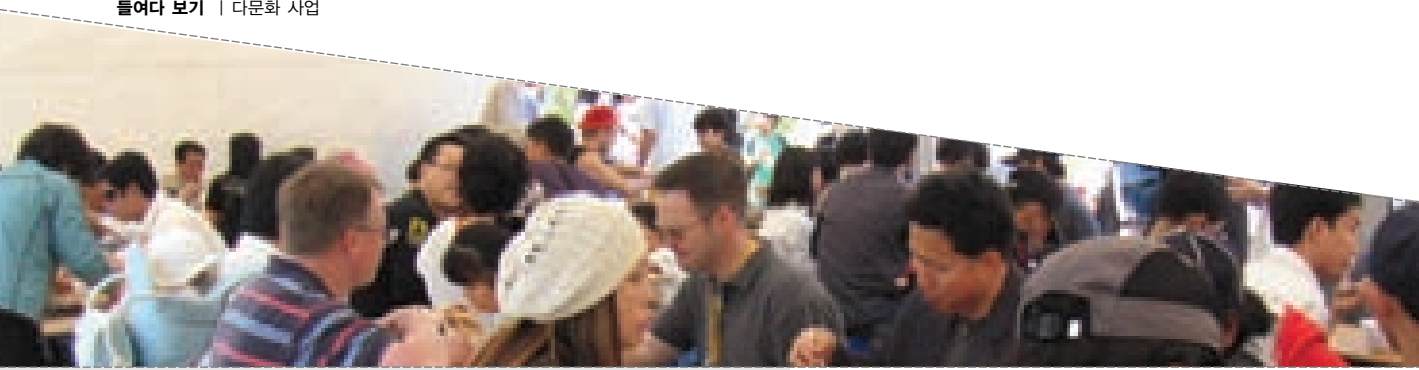
교육현장에서 본 그들의 얼굴은 늘 이주민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속사정을 알고 마음으로 살피주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업고 온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 돌보느라 수업이 있는 날은 사무실이 마비되어도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

연기문화원에서 보내오는 강사일지에는 결석한 수강생들의 사유와 이들의 집안 사정까지 소상히 적혀 있었고 금정문화원은 강의실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부산 시내에 소문이 퍼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새로운 수강생이 들어오고 있다.

사천문화원의 '다문화가족 차 만들기 체험' 동영상과 강진문화원의 '가족관계향상캠프' 사진 속 활짝 웃는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의 모습에서 단순한 교육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이들의 삶을 나누는 문화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친정부모맺기'를 통해 새로운 모녀의 인연을 맺은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동기행을 다녀오며 마음으로 낳은 딸과 손주를 염려하는 남해문화원의 어르신들의 글에 드러난 마음. 의지할 곳 없이 혈혈단신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엄마를 만들어 준 것보다 더 힘이 되는 일이 있을까. 지역축제에 참여해 자국의 전통과 음식을 소개하고 한사람의 지역민으로 역할을 해냈던 평창문화원의 이주여성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국립국악원의 다문화음악공연에 참여한 포천이주여성 합창단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연습으로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하나가 되는 단결을 엿볼 수 있었다.





민속박물관에서 주최한 다문화축제에 참여해 음식부스를 운영하며 즐겁게 활짝 웃던 시흥문화원과 흥천문화원의 이주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석화공예를 하며 열중한 평택의 이주여성들의 옆자리에는 문화원의 담당자들이 있었다. 매주 이주여성을 찾아가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며 마음의 쉼터가 되어 준 부안문화원과 연극연습을 하며 이주여성들의 수줍은 몸짓을 이끌어 내려던 팔공문화원, 주말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토요일까지 나와 그들과 함께 했던 대전 대덕문화원, 매월 한 번씩 문화체험을 통해 조금은 팍팍한 일상에 비타민 같은 하루를 선물했던 부산진문화원과 원주문화원, 각국의 가면을 하나의 공연으로 어우러지며 말 그대로 다문화공연을 만드는 강릉문화원, 이주여성들에게 영상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준 여주문화원. 이렇게 문화원 담당자들과 강사들은 엄마처럼 잔소리 하고 걱정 하고 언니처럼 보듬어주고 친구처럼 깔깔거리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주민들과 마음으로 통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전체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제결혼이주인이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6만여명에 달하며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의 다문화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태도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 관련 정책이 등장하고 2007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 2009년에서야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과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일 뿐이다.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책역시 미흡하다.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은 몸고생과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고 시간을 들여 이주민과 한국인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과 노력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 지방문화원이 있다. 이주민의 삶속에서 함께 숨 쉬고 나누며 그들 문화의 뿌리를 한국의 문화와 잘 섞어, 맛있는 비빔밥 같은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커다란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

말로는 힘들어 못하겠지만 정작 이주민들과 눈 마주치면 웃어버리는 지방문화원 담당자들의 웃음이 고소한 참기름이 되어 맛있는 다문화 비빔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민아 한국문화원연합회 다문화 담당 직원





공연장에서 올린 다문화 전통혼례 '하환몽(夏歡夢)'

과천문화원과 한피국악예술단이 주관하고 과천예원이 후원하는 '다문화 전통혼례 공연 하환몽(夏歡夢)'이 지난 8월 21일 저녁 7시 과천시민회관 야외 무대에서 열렸다.

잊혀져가는 전통혼례를 체험해보고 현대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 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과 혼례가 한 데 어우러지고 관객들과 공연팀이 함께 즐기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신명나는 노래와 춤으로 시작된 공연은 신랑·신부가 전통 혼례복을 입고 함진아비들과 함잡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여는 마당'으로 시작, 다문화가 정의 '전통 혼례식'을 올리고 축연무, 타악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과천문화원장)이 큰 손님역으로 혼례의식을 주관했으며 관객들은 하객이 되어 축하하고 즐기는 한마당 어울림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피국악예술단에서 준비한 음식과 막걸리는 공연과 결혼식 잔치에 흥을 불러일으켜 과천시민문화회관 야외마당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에게는 한국의 전통 예식과 문화로 혼례식을 치루고 남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되었고 공연을 본 과천시민에게는 낯설어져 가는 우리의 전통혼례를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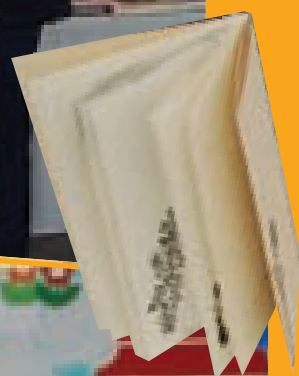


박물관에서 펼쳐진 책 세상

가을독서문화축제 ‘책책북북’

가을에 대한 수식어는 유난히 많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수식어가 아닐까.
독서의 계절, 가을의 문을 두드리는
책세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가을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현장으로 가보자.







가을의 문턱에서 보고 느끼는 책세상

지난 9월 24일(목)에서 27일(일) 4일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등의 공간에서 2009 가을독서문화축제 '책책북북'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독서생활화 및 출판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독서문화상 시상 및 축하공연, 기관 및 단체 홍보부스 운영, 독서사진 및 UCC 공모전,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연합회에서도 행사장 메인본부 구성 기관 홍보부스 운영하며 지방문화원 등 대표 향토서적(향토공모전 역대수상작) 연합회 발간 각종 서적(우리문화, 사업홍보 자료 등) 추진사업 홍보자료 등을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연합회 부스도 성황리에 전시

연합회 운영부스는 당초 향토사 서적 등이 대부분이라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많은 시민들이 무상 제공되는 각종 생활민속, 역사, 마을이야기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대중화 사업 교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전시 서적 300권 중 200권이 배포되기도 했다. 또한 향토사 및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연합회 기관 성격에 대한 관심과 추후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자료 요청도 쇄도하였다.

26일에서 27일 주말 이틀 동안 부스를 운영한 연합회의 이대균 주임은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다녀갔다. 명년도 개최 시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참가 시 보다 많은 향토사 관련 서적과 연합회 홍보물을 전시·배포할 필요 있다고 느꼈다. 어르신문화학교, 향토사대중화 사업 등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과 국민의 시 낭송의 밤 등 축제 홍보시 적극적 호응 유도도 쉬웠다. 각종 서적 발간 등에 있어 쉬운 제목, 세련된 디자인, 한자지양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도서 내용은 난해하더라도 디자인이 우수하고 눈길을 끈다면 자연히 관심이 집중되어 어려운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로 나누고 즐기는 책으로 한걸음 가까이

4일간 열린 이번 전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저렴한 가격의 책 시장이 열려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소가 박물관이니만큼 외국인들의 발길도 잦았는데 금요일 오후 방문한 한 아이는 풍선으로 만든 칼을 연신 만지며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오래된 책의 전시가 발길을 잡는가 하면 책의 내용을 구연동화로 풀어 설명해 주는 익살스러운 공연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도 했다.

방식대로 책 인쇄를 하는 체험과 책에 관한 사진 전시 등 풍부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가을을 맞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치가 흥취를 돋우었다.





미국작가 짐 비숍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세월을 멈추게도 하고 세월을 되돌려 놓기도 하며 미래를 향해 비약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책 수집가들은 그들만의 보물인 책을 찾아 끝없는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지는 책방이다. 책방 중에서도 수집가들에게 늘 보물발견의 기대감에 마음을 설레게 하는 헌책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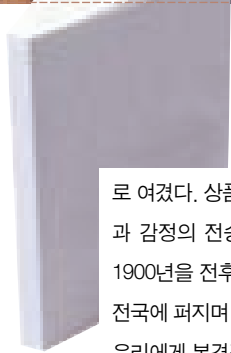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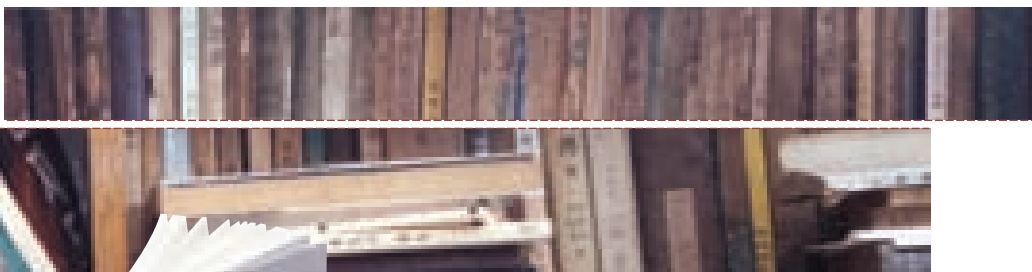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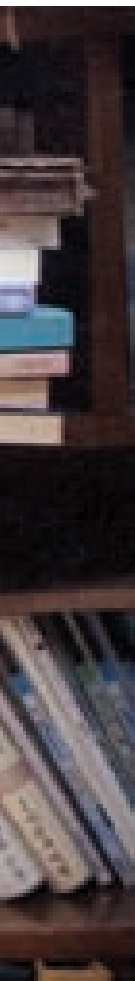
나도 틈만 나면 헌책방을 찾는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금은 헌책방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지역마다 헌책방이 꽤 있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헌책방을 자주 찾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지역은 일정한 주기로 순회를 하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동안 거주하였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 관련된 책이 모이게 된다. 나도 책을 처음 수집 할 때에는 인천에서 거주했고 직장을 따라 거주지를 수원, 과천, 안양으로 옮기게 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발간된 책들이 상당수 쌓이게 되었다.

그러나 헌책방들의 공통점이 있다. 어느 책방이던 오랜 기간에 걸쳐 항상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와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한시대의 잘 팔린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책들을 소위 베스트셀러(Best Seller)라고 부른다. 수집가들에게 이런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미 절판 되었거나 계속 출판을 이어가는 책의 초판(1판1쇄)들은 매력의 대상이며 수집의 타깃이 된다.

그러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를 호흡하던 대중의 민감한 욕구를 정확하게 포착 했다는 점에서 잘 팔린 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꼽을 수 있는 최초의 책은 춘원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다. 1917년 국한문 혼용 신문인 〈매일신보〉에 연재되고 그 이듬해 단행본으로 나와 1만부 가량 판매되면서 그야말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 당대의 예민한 주제인 자유연애를 다룬 이 소설의 성공은 개항과 함께 하나둘 문을 열고 사회 계층에 나섰던 출판사들이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폐업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한글창제를 자랑하는 우리지만, 개항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선인들은 책을 파는 행위를 천한 일



로 여겼다. 상품으로서의 책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같은 전통은 낮은 문자해독률과 어울려 사상과 감정의 전승 수단인 책의 보급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정>의 1만부 판매는 1900년을 전후해 근대적 교육기관들이 문을 열고, 기독교의 전파로 한글판 성경과 친승가가 전국에 퍼지며 독자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베스트셀러라는 출판용어를 알게 한 것은 아마도 50년대 초 한국전쟁과 4.19, 5.16 등 굵직한 정치·사회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시대정서와 대중의 애환을 반영하는 여러 저작물이 쏟아져 나온 후 부터 일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친 50년 이후는 소설의 시대였다. 50년대 최고의 문제작은 6.25 피란시절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그린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다. 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될 무렵 황산덕 서울법대교수와 작가 사이에 논쟁이 붙으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한층 자극했던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7만부가 팔려나갔고, 영화로 제작돼 1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4.19의 성취와 5.16의 좌절을 함께 맛보며 시작된 60년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양한 읽을거리가 제공됐다.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63년)가 에세이 붐을 일으킨데 이어, 다음해에는 소년가장 이윤복의 수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나와 온 국민의 마음을 적시었다. 또 정신적 방황과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데미안> 등 외국문학작품이 유행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60년대에 나온 소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단연 최인훈의 <광장>이다. 전쟁 직후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분단과 전쟁이 가져온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 이 작품은 문학출판사상 초우로 100쇄를 돌파한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이던 70년대 상반기 최인훈의 <별들의 고향>은 100만 부라는 전대미문의 판매고를 보여 이 소설로 촉발된 호스티스 문학은 이후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조해일의 <겨울여자>로 이어지며 상업문학 논쟁을 낳았다.

하지만 문학적 논쟁을 논외로 한다면 경제개발을 통해 서서히 붕괴해 가는 농촌과 급증한 도시빈민의 삶을 그린 '70년대 작가들'의 작품은 분명 '시대의 거울' 이기에 충분했다. 한편 70년대 중반에 나온 황석영의 <객지>, 윤희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들은 80년대 민중문학의 출현에 기틀을 마련했다.

1960,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출판시장은 1980년대 이후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는데, 이러한 출판시장의 성장은 베스트셀러들의 평균 판매 부수도 크게 증가시켰다.

단행본의 경우 보통 2만부 이상이면 베스트셀러로 간주하는데, 소위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라고 하는 100만부 이상을 상회하는 베스트셀러 시대를 연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인(聖人)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독서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두보는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라는 말을 남겼다.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책을 다독(多讀) 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 (1983), 김홍신의 <인간시장> (1981~89),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 (1986~89)과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지전적인 삶을 그린 김우중의 자서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김우중의 책은 소설이 아닌 비소설분야로 밀리언셀러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전10권으로 된 <태백산맥>은 최근 역사소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와 소설의 장편화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실례이다. 국내 순수문학 작품 가운데 최초로 100쇄 돌파를 이룬 책은 최인훈의 <광장>이다. 쇄(刷)는 같은 책의 출간횟수를 세는 단위로 100쇄라는 의미는 인쇄기에 100번을 걸었다는 것으로 하나의 책이 100쇄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일은 흔치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100쇄를 넘긴 작품은 꽤있는데 조세희의 <난장이가 가쏘아올린 작은 공>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78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96년 4월 100쇄를 돌파했고 2005년에 200쇄를 돌파해 현재 245쇄 까지 인쇄 되었으며 누적 판매부수도 100만부를 넘겼다. 이밖에도 최인훈의 <광장>은 161쇄,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135쇄, 김훈의 <칼의 노래>는 148쇄, 이문열의 <삼국지>1권은 139쇄, 김정현의 <아버지>는 145쇄,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124쇄,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114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시집 중에서는 류시화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240쇄, 권정생의 <몽실 언니>는 118쇄, 안도현의 <언어>는 109쇄 등의 동화도 100쇄 이상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법정스님의 대표 에세이 <무소유>는 173쇄 까지 나왔다.

대하소설로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완간 20년 만에 200쇄 출간(1권 기준)의 기록을 세웠다. 1997년 3월 다권본 최초로 100쇄 출간을 기록한 <태백산맥>이 2009년 3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로써 조정래씨는 대하소설 <아리랑>의 100쇄 출간(2007년)과 함께 한명의 작가가 세 번째 100쇄의 기록을 세웠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1권 제1판 1쇄가 1986년에 나와 1989년 마지막 10권으로 완간 되었으며 지금까지 1권 200쇄, 2권 163쇄, 3권 151쇄, 4권 139쇄, 5권 134쇄, 6권 129쇄, 7권 122쇄, 8권 114쇄, 9권 113쇄, 10권 111쇄로 모두 1376쇄가 제작되어 700만부 이상이 출간 되었다. 한국문학에서 오랜만에 밀리언셀러가 탄생했다. 신경숙씨가 2008년 11월에 선보인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1년도 안되어 100쇄 100만부를 돌파했다.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이후 8년 만에 탄생한 100만부 클럽 회원이다.

<칼의 노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봉순이 언니>등 기존 밀리언셀러들이 100만부에 도달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대박이 아닐 수 없다. 매달 10만부 가량이 팔린 풀이며, 국내 순문학 단행본으로는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일정기간동안 가장 잘 팔린 책이라 하면, 스테디셀러는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팔리는 책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테디셀러는 <성서>로 그 어느 책도 <성서>의 판매에 필적하지는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금을 통해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는 통술학과 인간학의 보고인 <삼국지>, 우리국민의 수신 교과서인 <명심보



감>, 한국인 최대의 애송시집인 <소월시집>, 나라사랑 고전(古典)인 <난중일기>, <백범일지>, 현대 문단사상 가장 오래 팔린 <광장>,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 동안 출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자는 같지만 역자가 다르고, 출판사가 다르고, 책의판형, 표지 등이 각기 다르며 만화로도 출간되고, 동화로도 출간되고, 연령층에 맞추어 읽기 좋게도 발간되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용도 좀 다르게 되고 구절이 누락되어 있는 등, 수백 종의 이본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가들에게는 이런 책들이 수집대상으로 좋은 컨셉 이었다. 필자도 책 수집의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스테디셀러들의 이본편이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에 책의 도시로 선포한 안양시와 협의해서 오랜 세월동안 즐겨 읽었던 스테디셀러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책읽기를 습관화시키고 책을 통해 인간의 도리와 덕을 배우고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가는데 기여하고자,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안양시립석수도서관에서 2009 테마별 도서전시회 <책이 있는 도서관 풍경>이라는 타이틀로 스테디셀러 이본편을 전시하고 있다.

<명심보감>과 <삼국지>는 이미 열었고, 지금은 <소월시집>이 열리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전시되고 11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난중일기>와 <백범일지> 이본편 120여종이 전시될 예정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문화가 꽃핀 나라는 예외 없이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서량과 독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성인들의 연평균 일반도서 독서량은 11.9권이며 독서율은 72.2%로 성인 10명중에 3명은 1년간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나 인터넷 등의 접촉시간이 늘어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대국을 향해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 성인(聖人)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독서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 두보는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을 남겼다.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책을 다독(多讀) 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책을 읽으므로 베스트셀러가 생기고 세월이 흐르면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이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많아질수록 책 수집가들의 발길은 분주해진다. 책 수집을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 구두가 닳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읽어 베스트셀러를 많이 탄생시켰으면 좋겠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기획

韓國의 禮節

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3. 한국의 예절은 우리의 고유문화(固有文化)

가. 한국예절은 우리 생활문화

우리나라의 예절은 우리의 고유문화이다.

예절은 언어(言語)와 같은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물에 막혀 일정한 지역에서 무리지어 사는 생활권에 따라 쓰여지는 말이 다르듯이 예절도 일정한 지리적·풍토적으로 특이한 여건 아래의 생활권에서 행해지는 생활방식이다. 따라서 언어 문화권과 예의 문화권은 거의 같은 테두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활예절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예절을 말하면서 으레히 8백년 전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인 주희(朱熹)의 가례(家禮)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 까닭은 1392년에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朝鮮)이 고려 때에 성행하던 불교문화를 누르기 위해 주자학을 채택하여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썼고, 때문에 당시의 지배층인 선비들이 주자학을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말로만 주자가례를 앞세웠을 뿐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활방식인 주자의 가례도 우리의 생활문화와 큰 차이가 없었고, 한자문화(漢字文化) 관계로 주자의 가례를 많이 보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은 따르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은 말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음식이 다른데 어떻게 중국의 생활방식과 우리의 생활방식이 같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인례(婚禮) |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해 부부가 되는 절차인데 주자의 가례는 남자의 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러 부부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자의 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러 부부가 된다.

② 상장례(喪葬禮) | 사람의 죽음을 갈무리해 장사 치르는 절차인데 우리나라의 효자는 부모의 묘지 앞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묘지를 모시는데 주자의 가례는 그 시묘(侍墓)제도가 없다.

③ 제의례(祭儀禮) |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어 효도를 계속하는 절차인데 중국은 차(茶)가 대중음료이기 때문에 모든 제의에 차를 올리지만 우리나라는 일체 차를 올리지 않는다.

④ 배례법(拜禮法) | 중국에는 9가지의 절하는 법이 전해지는데 우리나라는 5가지의 배례법이 있다.

나. 주자의 가례의 시작과 한국에서의 정립(定立)

1) 한자문화권의 삼례(三禮)

한자문화권을 대표하는 중국에는 예부터 다음과 같은 3례가 전하고 있다.

① 의례(儀禮) | 황제헌원(黃帝軒轅 서기전2698) 때부터 은(殷)의 끝 임금 주(紂 서기전1122) 때까지의 예절이다. 그 시대의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는 모든 예절로서 원래는 57편이었는데 현재는 17편만 전하며 책명도 예경, 사례, 의례(禮經, 士禮, 儀禮)로 변하였다.

② 주례(周禮) | 주(周)의 무왕(武王 서기전1121) 때부터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서기전248) 때까지의 예절이다. 주의 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여러 나라의 모든 예절로서 모두 12편인데 책명도 주관, 주관경(周官, 周官經)이라 하다가 뒤에 주례라 하게 되었다.

③ 예기(禮記) | 진 시황(秦始皇 서기전247) 때부터 전한 선제(前漢 宣帝 서기 전50) 때 까지의 모든 예절이다. 처음에는 131편이었던 것이 214편까지 늘었다가 49편으로 정리되었는데 뒤에 주희(朱熹)가 대학편, 중용편(大學篇 中庸篇)을 떼어 4서(四書)에 편입시켜 현재는 47편이다.

1169년에 주희가 그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상(喪)을 치를 준비의 하나로 위의 3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례절차를 모아서 쓰게 된 것이 가례의 시작이 된다. 그가례 7권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확실히 고증하기 어려우나 통례 거가잡의(通禮 居家雜儀)의 제목이 '사마씨 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인 것으로 보아 주희의 단독저술로 볼 수는 없다.

그 가례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언제인지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1314(高麗 忠肅王 1)년에 원(元)으로부터 송 비서각(宋 秘書閣)의 서책 14,800권을 드려와 만권당(萬善堂)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주자의 가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를 1314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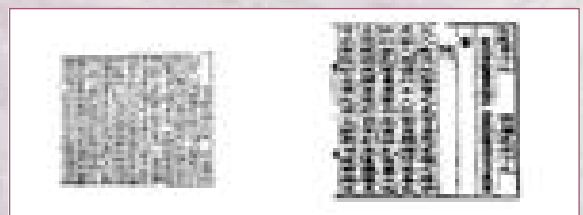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례가 주자의 가례라면 131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예서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주희의 가례보다 앞서는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1113(高麗 睿宗8)년에 이미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를 설치하였고, 고려 인종(仁宗1123~1146在位)이 태학박사 최윤의(太學博士 崔允儀 1102~1162)에게 명하여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50권을 완성해 진상하였고, 그것을 1234년에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으로 28질(帙)을 인쇄한 사실이 고려의 학자 이상국집(李相國集)에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세종 대(朝鮮 世宗代)에 씌어진 고려사 예지(高麗史 禮志)에 상정고금예문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희가 가례를 쓰기 시작하기 23년 전에 가례 보다 7배에 달하는 방대한 고려의 예서 상정고금예문 50권이 완성되었고, 주자의 가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80년 전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으로 인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直指心經이 1377년에 간행된 것이므로 그보다 금속활자 인쇄사가 143년이 앞서게 된다)



▶ 상정고금예문 금속활자 간행근거 '이상국집'

▶ 고려사(高麗史) 예지부분

2) 주희(朱熹)가 가례(家禮)를 쓰기 시작

이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예절은 우리 고유문화임이 확실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미개한 야만족이라 하더라도 생활방식인 예절은 절대로 남의 예절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그 지역의 고유문화인 것이다.

4. 가가례(家家禮)에 대한 바른 이해

가. 집집마다 지방마다 예절이 다른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핀잔줄 때에 “왜 남의 제사에 밥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느냐?”고 한다. 이 말은 예절은 집집마다 지방마다 다른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가가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지책에 예절이야기를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예절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도 가정단위로나 할 일이지 국가적인 공교육이나 광역 사회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예절책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예학자로 추앙받는 학자가 있다. 때문에 가가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가가례가 있다면 그것은 학파(學派)에 따라 예절이 다르든지 아니면 당색(黨色)에 따라 예절이 달라야 할 것이다. 현대에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 학설이 달라지고, 정치도 정색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당이 다르니까 반대한다는 풍조가 있음을 보아 학파와 당색에 따라 예절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한국 근대사에 나타나는 학파와 당색(黨色)

한국은 조선 선조(朝鮮 宣祖 1568~1608 在位) 때부터 학파와 당색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역으로 보아 소위 조선팔도(朝鮮八道)중 함경도(咸鏡道)와 평안도(平安道)는 큰 학자가 없어 학파를 가를 여지가 없고, 남은 6개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江原·京畿·黃海·忠清·全羅道) 등 5개도는 기호학과(畿湖學派)라 하였고, 경상도(慶尙道)는 영남학파(嶺南學派)라 하였는데 기호학파는 울곡 이이(栗谷 李珥)선생의 학맥(學脈)을 잇고, 영남학파는 경상도의 동북부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선생의 학맥을 잇고, 서남부는 남명 조식(南冥 曹植)선생의 학맥을 잇고 있었다. 조선조의 당색은 1575(宣祖 8)년에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전랑(銓郎)관직을 둘러싼

논쟁이 심의결에게 기호학파가 가세하여 서인(西人)이라 하고, 김효원에게 영남학파가 가세하여 동인(東人)이라 하여 동서로 분당하더니 동인은 퇴계학맥이 남인(南人)이 되고 남명학맥이 북인(北人)으로 갈리고,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려 마침내 노소남북(老少南北)의 4색으로 분립하여 치열한 정쟁을 벌렸다. 위와 같은 동서갈등과 임진왜란, 4색 당색과 조선후기의 정쟁은 원인과 결과로 반복하면서 개화기까지 이어졌다. 만일가가레가 있다면 학파와 당색에 의한 것이어야 함

기호학과(畿湖學派)	구 분	영남학과(嶺南學派)
강원, 황해, 경기, 충청, 전라	지 역	경 상
울곡(栗谷) 이이(李 珥)	학 맥	(北) 퇴계(退溪) 이황(李 滉) (南) 남명(南冥) 조식(曹 植)
서인(西人) → 노론(老論) → 소론(少論)	당 색	동인(東人) → 남인(南人) → 북인(北人)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대표 예학자	한강 정 구(寒岡 鄭 述)
① 상례비요(喪禮備考) ② 가례집람(家禮輯覽) ③ 의례문해(疑禮問解)	대표에서	④ 오선생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다. 학파와 당색을 대표하는 예학자(禮學者)

서인과 노론, 소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는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선생이고 동인과 남인, 북인을 대표하는 예학자는 한강 정구(寒岡 鄭逵 1543~1620)선생이다. 사계선생의 대표적인 예서(禮書)는 상례비요, 가례집람, 의례문해(喪禮備要, 家禮輯覽, 疑禮問解)이고, 한강선생의 대표적인 예서는 오선생 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인데 다섯분 선생의 예절학설을 분류했다는 5선생은 유림(儒林)의 원(源)배(載)미(未)라 중국 남송(南宋)의 학자다섯분 으로서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중국학자의 예설을 연구한 것이다.

당연히 그 이후의 영남학파의 학자들은 한강선생의 예학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계선생이 저술한 상례비요는 우리나라 민간에서의 효시본(嚆矢本)이고, 가례집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예학의 이론서로서 현재의 학자들도 “주희의 가례를 조선의 가례로 정립한 저술로 만일 가례집람이 없었다면 조선의 예학은 창시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계선생은 상례비요와 가례집람의 서문에서 “모든 예절이 주자의 가례에 소상하게 적혀있지만 그것은 4백년전 송나라의

예절로서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없는데 오늘의 선비들이 그 본 뜻을 터득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게 변통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참작하고 우리나라의 풍속을 붙여서 실용하기 편리하게 내용을 잘 꾸몄다"고 하면서 91가지의 우리나라 학자의 학설을 기록하는데 반대학과인 퇴계학설을 30%가 넘는 34가지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의 풍속과 제도(國俗, 國制) 73가지를 기록하여 모두 164가지의 우리 예절을 수록하였다.

그래서 사계선생을 '조선예학의 종장(朝鮮禮學 宗長)' 이라 하고, 사계선생과 그 아드님인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선생이 겨례의 스승으로 문묘에 종사(文廟 從祀)되어 승현(陞賢)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라. 가가례의 존립(存立)을 부정(否定)한 의례문해(疑禮問解)

위에 이어서 역시 사계선생의 저술인 의례문해는 가례의 변례(變禮, 응용관계)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질문에 사계선생이 답변한 문답 542건을 수록한 책이다.

그 답변에 인용된 학설이 134건인데 그 중에서 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79건이 영남학파(李滉 41건 / 鄭經世 21건 / 鄭述 15건 / 申滉 2건)의 예설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의문 있는 예절의 질의에 반대학파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다.

그런데 사계선생은 과감하게 반대학파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답한 것이다. 지금도 기호학과와 영남학파를 우리나라에서 쌍립된 학파로 보고 있어서 만일에 가가례가 있다면 기호학과와 영남학파의 예절이 달라야 할 것인데 기호학과와 대표적 예학자인 사계선생이 반대학파인 영남학파의 학맥 정점인 퇴계 이황, 퇴계의 제자인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의 제자로서 예학은 승어퇴계(禮學 勝於退溪)라고 지목받는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 영남학파의 대표적 예학자인 한강 정구, 퇴계의 제자이며 가례언해(家禮諺解)를 저술한 용줄재 신식(用拙齋 申滉)의 예설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사계선생의 학문태도가 얼마나 사심(私心)없는 학문위주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기호학과와 영남학파의 예절이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정평있는 예절 대학자들의 예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가례라고 하는 이설(異說)들이 없다는 데에 주

목해야 한다. 그것은 사계선생의 의례문해에서의 폭넓은 반대 학파의 예설수용-응답으로 가가례의 존립이 어렵게 된 것이다.

마. 그렇다면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는 무슨 말인가?

실제로 가가례가 존재할 수 없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핀잔줄 때에 "왜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느냐?"고 한다면 다른 예절은 가가례가 없지만 제상 차리는 것은 집집마다 달랐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어느 학파에서 누가 썼든 모든 가정의례에 관한 예서를 보면 제례(祭禮)가 있고, 당연히 제상 차리는 방법을 그린 진설도(陳設圖) 또는 진찬도(陳饌圖)가 있다. 그런데 어떤 예서가 되었던 과실(果實)을 제상의 남쪽(신을 모신 반대쪽) 끝줄에 차리도록 그려져 있다. 이렇게 모든 예서가 과실은 제상의 남쪽 끝줄에 차리도록 통일된 것이다.

그래서 제상을 차리려면 예서의 진설도(진찬도)를 펼치고 밤·대추 접시를 들고 그것을 놓을 자리를 찾는다. 아무리 찾아도 밤 또는 대추라고 쓴 곳이 없다. 전부 과실, 과실(果, 果)이라고만 썼지 과실의 종류를 쓰지는 않았다. 한 참을 찾다가 팔이 아플 지경이 되면 깨닫는다. "옳거니, 이것도 과실이니가 제일 남쪽에도 차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밤 대추를 어디에 차리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밤과 대추를 적당히 과실 줄에 놓는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밤은 여기고, 대추는 저기이다"고 간섭을 하니가 "예절책을 보란 말이야. 과실은 제일 남쪽 줄에도 차리면 되는 것이고, 밤과 대추를 어디에 차리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당신이 시비를 하는게야?"라고 핀잔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례편람(四禮便覽)까지의 옛 학자들이 한문으로 쓴 정통예서(正統禮書)를 보면 아무 데도 과실의 이름을 쓴 예서가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작과 음식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했으면서 왜 과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지방과 계절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밤과 대추를 써놓으면 밤과 대추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놓아야 할 것이다. 밤이라고 지정한 자리에 다른 과실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니 말이다. 미루어 보아 가가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가례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계속)

경기도지회

지난 9월 25일(금) 11시부터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화성시 방문이 있었다. 화성시청 2층 상황실과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장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화성문화원 사업활동 설명과 화성시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어 전곡항으로 이동하였으며 경기지방 문화원장 간의 우애와 사기를 증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거창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 공연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 실버청춘연극단이 지난 9월 9일 서울 서교동 홍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제정 기



념행사에 참가하여 연극「어머니 울지 마세요」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 일환으로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137개 문화원이 참가하여 노인세대들의 같고 닮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여 나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소통의 장이 되었다.

실버청춘연극단은 노인 연극의 진수를 보여주며 관객들로부터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수준 높은 연극이라는 평을 받았다.

제3회 경상남도지사배

사투리 말하기 대회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9월 23일 마산시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상남도지사배 사투리(우리 고장말)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일반부 정인순씨가 금상을, 초등부 김선정(거창초 1) 학생이 특별상인 마산시장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주최하고 마산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 29명의 연사가 출연하여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지역 문화나 생활상을 소개하였으며 경상도 사투리의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지역 정서가 잘 녹아있고 정감 넘치는 사투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보존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천문화원

시민대상 무료 전통혼례식 거행

김천문화원(원장 송영호)에서는 9월 12일 오후 4시30분에 직지문화공원 장승광장에서 신랑 전상훈(41세.김천시 신음동) 군과 신부 강영은(40세.서울시 강서구)양의 전통혼례식을 거행했다.

직지사주차장에서 문화원여성농악대의 축하를 받으며 출발한 신랑, 신부 행렬이 장승광장에 마련된 초례청에 당도하면

서 시작된 이날의 혼례식은 김천문화원 송영호원장의 집례와 박시하 감사가 집사로 참여한 가운데 친영례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 고례의 예법에 따라 시종일관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렸다.



김천문화원에서는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전통혼례식을 무료로 올려주고 있다.

대덕문화원

문화 소외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현)에서는 원도심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9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덕구 목상동 목상초등학교 특설무대와 연축동 야외무대에서 각각

“들말 주민 얼씨구”와 연축동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목상동에서 개최된 “들말주민 얼씨구”에서는 솟대만들기, 연잎밥 시식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대덕구 대표민속놀이 ‘목상동 들말두레놀이’ 시연, 극단 종다의 마당극 ‘그릴 리가 얼라리요’ 대표 386가수 안치환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연축동 작은음악회”에서는 내방의 이름표 만들기, 연등만들기등의 체험과 함께 연축주민 노래자랑 한마당, 난타 · 경기민요 · 퓨전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어울어져,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작은발표회” 개최

대덕문화원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와 활동이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았다.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공연을 진행하는 실버극단〈다솜바리〉 27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통문화 예술, 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는 대덕새싹문화탐험대의〈실버멘토〉 20명, 관내작은도서관에 배치되어 도서대출, 도서정리 등 도서관 관련 보조업무 및 도서관 방문 이동을 위한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등을 진행하는 대덕작은도서관〈실버도우미〉20명, 밥주걱 · 화분 · 붓

걸이등의 생활목공예를 제작 및 장승, 솟대, 농작물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행복주걱만들다(장승공방) 20명 등 총 87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9월의 마지막날 진행된 작은발표회에는 실버멘토의 사례발표, 장동공방의 작품전시, 실버도우미의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실버극단 다솜바리의 “짚신장수팔복이와 은혜깊은 자라”의 공연이 진행되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포천문화원

9월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실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0일 포천시민 및 포천문화에 관심 있는 인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중 문화유



적답사 시티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문화유적답사에는 포천시민 및 의정부 등 인근지역에서 80여 명이 참여하여 포천시 관내 문화유적을 방문 답사함으로써 포천의 문화유적을 바로 알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답사에서는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더불어, 충목단, 화산서원, 포천향교, 인평대군치제문비를 방문하고 영북면에 위치한 한과박물관 한가원을 방문, 박물관을 둘러보고 전통한과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명현, 석학,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자, 문향의 고장인 포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유서 깊은 문화유적을 둘러보고 포천의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포천시민 및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는, 포천시민 및 포천문화에 관심 있는 인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자세한 문의는 포천문화원(☎532-5015)으로 하면 된다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9월 23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을 문화원 임·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올해 년 초부터 몰려오는 경제위기, 사회불안 등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을 좀 더 밝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시작 된 사업으로서, 특히 이번 공모에 전국 각지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유려한 편지글로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관계 전문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하느라 노력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겨운 편지를 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포천문화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장원은 대전시 이규인님의 '지키지 못한 약속' 이 차지했으며, 차상 동남고 오두송 학생, 차하 남양주시 윤선이님, 포천시 허현미님, 특선은 수원시 최연숙님, 전남 순천시 박애영님, 전북 부안군 박현지님, 입선에는 의정부시 박정은님, 충북 충주시 박인자님, 대구시 윤경희님, 포천시 이은순님 등 총 11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장원, 차상, 차하 수상자에게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협찬한 농산물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되었고, 특선, 입선 수상자에게는 포천도서관에서 협찬한 문화상품권과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포천문화원은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매분기별로 연중공모하고 있으며, 장원작은 "포천문화사랑" 책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포천문화원(☎031-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 합창단 '국립국악원' 공연 참가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9월 27일 국립국악원 주최로 개최된 <새로운 문화의 바람, 아시아를 만나다> 공연에 포천문화원 다문화 교실 합창단 및 가족 30여명이 참가했다.

포천문화원 '다문화 교실 합창단' 은 2009년도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6월부터 결성·진행되어왔으며 한국어 교육과 함께 노래를 통해 즐겁게 우리말을 배우는 합창단으로 이날 공연에 앞서 국악박물관 견학 및 투호, 사물놀이 등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14만 여명의 다문화 가정 시대에 이주자에게는 각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통해 고향을 추억하고, 자녀들에게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마련된 공연행사다.



특히, 노래를 통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배우는 포천문화원의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합창단' 수강생들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연주에 맞춰 <비둘기집>, <강원도 아리랑>을 합창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며 노래로 하나 되는 무대를 꾸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포천문화원 '다문화 합창단' 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추후 노래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예정이다.



2009 문화의 날 기념식 오용원 평택문화원장과 이병찬 전 진주문화원장 문화훈장 수상

2009 문화의 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17일(토) 10시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고 2009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김금하의 서해안풍어제 만선기원가가 개막공연으로 열렸으며 국민의례 후 주제영상이 이어 상영되었다. 인천광역시장의 환영사 후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과 제 17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41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문화훈장 서훈은 은관, 보관, 옥관, 화관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의 기념사와 테너 전인근, 메조소프라노 신현선의 공연, 차기 개최지 발표(목포 홍보영상 상영), 인천시립무용단의 폐막공연, 폐회선언으로 기념식이 끝이 났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과 이병찬 전 진주문화원장의 문화훈장(화관) 수상으로 문화원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20여년간 평택문화원 회원, 이사, 원장으로 재임하였으며 향토사료관 '웃다리박물관'을 개관·운영하고 지역 농악 보존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했다. 이병찬 전 진주문화원장은, 진주문화원장으로 재임 시 디지털진주문화전자대전 편찬과 진주성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등 활발한 발간, 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였다.

10월말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편람 발간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편람이 발간되었다.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운영 전반의 기본자료인 지방문화원 운영 편람을 발간하고자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편람의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원의 연혁과 기능, 문서의 작성과 시행, 회의진행의 방법, 지방문화원 제 규정, 지방문화원 운영관련 법령 등, 기타, 부록(지방문화원 행정양식등)등으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책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전문가의 감수를 받기도 하였다.

창작시 공모마감, 오는 11월 12일 시낭송의밤 열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모한 창작시는 성황리에 공모가 마감되었다. 오는 11월 12일 국회에서 시낭송회가 열릴 예정이며 창작시 수상자는 국회의원과 시인, 문화원장 등과 낭송의 기회를 갖는다.

9~10월 주요행사

지난 9월 25일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화성시를 방문했다. 이에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로 격려를 보태었고, 9월 27일 의성문화원장의 급성간암판정으로 별세하였으며 문화원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위로를 전했다. 마재하 의성문화원장은 2008년 10월 1일 의성문화원장에 취임하여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마포문화원은 지난 8월 25일 거구장에서 2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경선을 통해 최병길(55세, 崔秉吉) 씨가 제 4대 마포문화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0월 1일 거구장 2층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이 거행되었고 이 자리에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10월 14일은 문화원의 날이 세종홀에서 개최되어 많은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홍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이에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지방문화원은 국가정체성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가면서 스스로의 자생력과 창의성을 키워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밝히며, '연합회는 문화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며 각오를 내비쳤다. 2009 문화의 날 기념식은 지난 10월 17일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용원 평택문화원장과 이병찬 전 진주문화원장의 화관 수상으로 문화원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참석하여 격려하며 기쁨을 나눴다.

연합회 직원 동정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계장 서종원(민속학 박사) 2009. 10. 19 연합회를 사직하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마포문화원장 최병길 씨

지난 8월 25일 거구장에서 2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경선을 통하여 총 49표에서 28표로 얻어 최병길(55세, 崔秉吉) 씨가 제 4대 마포문화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0월 1일 거구장 2층 컨벤션홀에서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및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등, 지역유지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다.

최 원장은 '두고두고 그 이름이 회자될 이선재 직전 원장' 을 소개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마포는 서울에서도 전통과 역동의 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곳' 이라며 '그만큼 문화적 잠재성도 많지만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크고 다양하리라 생각' 된다고 밝히며 '문화원은 구민들을 위해 그 사명을 다할 것'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 원장은 중앙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종합목재(주) 유니마루대표로 재직해 있다.



의성문화원장 마재하 씨 별세

마재하 의성문화원장이 지난 9월 25일 향년 64세로 별세했다.

마재하 의성문화원장은 2008년 10월 1일 의성문화원장에 취임하여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2009년 초 서울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담도암 초기로 판정되어 투병 중에 항암 치료 후 2009년 4월 정기 검진결과 거의 완치되었으나 그 후 6월경 과로에 의해 암이 재발되어 담도에 서 간으로 전위되어 급성간암판정으로 40일 정도 입원 치료 중에 9월 25일 오후 4시 30분 운명하였다. 문화원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정해걸 국회의원 등이 다녀갔다. 유족으로 김외선 여사와 2남 1녀의 자녀가 있고 모두 출가하였다.

jesamkwang.com

Design
Tonic

JSKcommunications

세상 모든 디자인은
(주)삼광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니다.

JSKcommunications

[100 SAMKWANG COMMUNICATIONS CO., LTD]

서울시 용구 자갈치 75-8 4-272동 402호 +402호 / TEL 02-2079-0700 / FAX 02-2079-0700